醫師우위時代지나 患者납득해야治療

◇미국醫療界의 意識革命

미국의 의료는 기본이념 자체에서부터 크게 변혁되어가고 있다。특히 환자의 힘이 크게 강화되었다。조오지타운대학 케네디연구소장이며 생명윤리학(bioethice)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E·D페레글리노」박사에 의하면 미국의 의료에서최근 가장 크게 변화되고 있는 것은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그리고 의료에 대한 쌍방의의식이다。

그는 의사생활이 40년째인데 20년전까지만해도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방법에 대하여 의문을 갖거나 질문을하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고말한다。이따금 질문하는 일이있어도 의사의 기분을 상하지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로 묻고 했다。의사의 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 환자들은 순종하는 수 밖에 없는 시대였다。그러던 것이 근래 15년사이에 환자의 입장과 권리의식이 두드러지게 강화되었다。자신의 의료에 대하여 의사에게 묻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없이 납득이 갈 때까지 묻는다。다시 말하면 환자와 의사가 대등·평등한 입장에서 대화·동의하는 절차를거쳐 의료적 결단을 내린다고하는 생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미국의료사에 있어서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자가 스스로 의료내용의 결정에 대폭 참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그러한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펠리글리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옛날 의사들은 환자의 救命과 延命에만 전력을 다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생각하면 즐거운 시대였다。그것이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로 사태는 일변되고 말았다。설사 가능한 조치도 환자보호자의 생각、사회의 도덕·윤리·법률에 비추어 가부를 결정하기 어려운문제가 계속 나왔다』

예를 들면 체외수정、장기이식、식물태환자、존엄사、뇌사판정 등이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다。이와같이 의사의 독단으로는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많아졌다。거기에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다원화·다양화되어가고 있다는 것。그래서 의사의 판단과 근거가 되는 데이타를모두 환자에게 알기 쉬운 말로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납득시켜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요즘 「의료윤리」의 근원인 히포크라테스와의 결별이란 말이 나오게 되었다。히포크라테스는 의사는 환자에 대하여 환상 자애심으로 대하고 그러면서 권위를 유지하라고는 했어도 환자의 납득과 동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한바 없다。그 반대로 그는 병의 진실을 환자나 그 보호자에게 말하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고민을줄 뿐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에게 진실을 알리는 방법이라고 「페리글리노」는 말한다。어디까지나 신중하게 환자 개인의 판단력 생활태도、인종、종교、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배려하지 않으면 안된다。그러나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한다。자신의 병에 대하여 참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환자가 의사와 대등하게 이야기하고 의료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바른 정보의 共有」없이는 의료상의 합의라든가 납득에대하여 말해도 의미가 없다는것이다。그의 경험으로는 진실을알려서 그것이 환자의 이익을손상케 한 일은 한번도 없었다。

또 한사람 현재 미국연방정부 보건연구소(NIH)임상의학연구센터의 바이오에틱스 담당부장인 「J·C플레처」박사도 미국의 의료는、현재 환자의권리의식이 강화되어 동의와 참가가 불가결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만약 내가 중병에 걸렸던가 수술이 필요하던가 해서 의사의 진단을 받을때는 반드시묻고 싶은 사실의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서 의사를 만난다。의사 앞에서 묻고 싶은 것을 잊어서 빠트리면 안되기 때문이다。그리고 의사의 대답은모두 그 면전에서 메모한다。후일 醫事소송이 일어났을 때 그 증거로 삼고자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단지 자기의 이익을잘 지키고 싶다는 생각때문에 하는 메모인 것이다。의사쪽에서도 대체적으로 수술의 필요성에 대해 환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때는 설명내용을 테이프에 녹음한다。아무리 말을해도 알지 못하는 환자로부터자기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현재 미국인의 8할은 담당가정의가 있는데 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면 외과의를 소개한다。그리고 그 진단(「제1의견」이라고 말함)에 납득이 안갈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외과의의 「제2의견」을듣고 싶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것이 15년전이었다면 그외과의는 성이 머리끝까지 나서 큰일났을 것이다。그러나 요즘은 모든 의사들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1973년에 환자의 기본적 권리가 법률로 확인되었다。주요한 병원에서는 「환자의 권리옹호관」이 배치되어 있다。그리고 당시까지의의료는 의사들이 정한 기준에의하여 적당히 실시되어 왔다。

『1973년 이전의 환자는의사는 전문가이고 자신은 문외한이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것을 의사에게 맡긴다는 태도였었다。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자신이기 때문에무조건 의사에게만 일임하는 짓은 하지않는다。이것이 근본사상으로서 환자쪽의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플레처」는 말한다。

그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암으로 진단되었을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6살이 넘었다면 절대 비밀로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안이한 방법으로 어른과 어린이를 구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의견이다。전에는 어린이가 암으로 진단되면 부모가 극구 어린이에겐 비밀로 해달라고 애원했었다。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어린이는 어린이 나름으로 이해하며 마지막까지 보다 잘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그래서 요즘은 부모에게 알리는 의료상의 정보는 모두 어린이에게도 알리고 있다。그것이 어린이의 인권을 지키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라고 「플레처」는 말한다。

요즘 미국의 의사들 사이에서는 Patiet (환자)라고 말하지 않고 Client (고객)이라고 말하는 풍조가 정착되어가고 있다。변호사에 대한 소송의뢰인이 Client이다。이젠 환자의 「병을 고쳐준다」「생명을 구해준다」고 하는 의식 내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의사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환자와 의사는 병을 고친다고 하는 공통목적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되는 파트너의관계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환자야말로 의료의 주인공」이란 사상이 의료계의 기본사상으로 되어가고 있는것이다。

患者가醫師지시 거부할수도 있다

患者기본권리法律로 보장、주요病院 「권리옹호관」배치

스트레스가 이렇게 病을 유발한다

腦에서 분비된 化學物質이 백혈구免疫體系파괴

가족사망충격으로 사망하거나 成人病에쉽게걸려

슬픔·분노·고독·불안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암·심장병등 성인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뉴욕 건강보험계획센터는 최근 심장마비에 걸린 2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대부분이 고독했고 집과 회사에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사실을 밝혀냈으며、이들이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도 정상인에 비해 4배나 더 높다고 지적했다。스트레스가 면역관계화학물질을 약화시키는 한편 백혈구를 무력화시켜 방어기능을저하시킨다는 사실은 지난60년대 중반 美펜실베니아大「마틴·세리그먼」교수팀과 지난82년 UCLA大연구팀의 동물실험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그렇다면、스트레스는 어째서 인체를 병으로 몰아넣게 되는가。현재까지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스트레스가 몸을 약화시키는 과정은 그림과같다。

스트레스는 인체내에서 일반 동물에서의 「위기상황」과 같이 인식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어지며 자연히 면역력이 약해져 병에 걸리기 쉽게 되는것이다。

스트레스가 뇌에서 인식되면 이것이 전기화학적인 작극이되어 視床下部는 腦下垂體에서부신피질호르몬(ACTH)을 분비하도록 지시한다。

ACTH는 혈관을 타고 흘러서 즉시 신장에 도착한다。

신장에 도착한 ACTH는副腎을 자극시켜 모든 신체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코티솔과에피네피린 등의 호르몬 분비가 이루어진다。

에피네피린 호르몬은 심장박동수를 높여주는 호르몬으로원래는 동물이 적과 마주쳤을때 대항하는 능력을 높여 주는역할을 맡고 있다。

위는 혈액 속의 호르몬에의해 신체가 비상사태에 이른것으로 오판、최선의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 가스트린호르몬을 방출、신진대사를 원활히해준다。이에따라 중요 단백질의 분해·결합작용이 신체의 모든 곳에서 재빨리 진행된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분비된 호르몬은 여성의 경우 복잡한 재생산 사이클을 방해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호르몬의 균형을 깨뜨린다。

신장도 레닌을 생산하기 시작、혈관을 수축시킨다。

코티솔 호르몬의 증가로 인해 백혈구생산을 맡고 있는기관들의 기능이 현격히 저하된다。

비장과 腦腺이 수축되며 이에 따라 면역체계가 약화된다。

한편 뇌는 신체 각기관의부산한 움직임 때문에 진통호르몬인 아편과 같은 화학물질을 방출해 고통을 줄이려 한다。

이 아편 호르몬이 혈액안에 증가되어 백혈구는 위력을 잃고 질병에 대한 신체의 반응은 무력하게 된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UCLA大「존·리베스킨드」박사는 『뇌가 면역체계를 지배한다』고 말하고 『환경의 개선、마음의개선을 통해 스트레스를 이기는 것이 건강의 지름길』이라고말하고 있다。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웃으며 살라。

成人病은 만성퇴행성질환입니다 조기발견에 힘씁시다.

김재전의원
진료과목 : 외과·산부인과 성인병일반
원 장 : 김 재 전 (본협회 會長)
전 화 : 723~1363 (서대문구홍제동)

태창한의원
진료과목 : 한방내과·침구과 성인병일반
원 장 : 이 금 준 (본협회 副會長)
전 화 : 599~4565 (강남구 방배동)

동성의원
진료과목 : 외과·내과 성인병일반
원 장 : 여 성 수 (본협회 監事)
전 화 : 802~0977 (구로구 시흥동)

김영택안과의원
진료과목 : 안 과
원 장 : 김 영 택 (본협회 理事)
전 화 : 723~7959 (종로구 종로1가)